

특별기획

김장채소 관리현장 기술 지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가을 대비한 수급안정·고품질 생산 위해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태풍 차바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고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온과 가을철을 대비한 김장채소의 수급안정과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와 포장 관리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

김장채소인 배추는 9월 정식 후 현재 결구기에 접어들어 양분과 수분이 부족할 경우 결구가 형성되지 않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할 수 없어 가을 김장채소 관리에 있어 현재

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9월 정식기에 가뭄과 고온으로 인하여 초기 생육이 불량하고 태풍으로 인하여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 무름병 및 노균병 등이 발생하고 정식 초기 고온으로 인하여 배추출나방과 벼룩잎벌레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생육이 불량한 포장에서는 요소 0.2%액(20리터당 40g)을 뿌려주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깊은 포장은 배수구를 정비하고 습해와 건조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생육

증기부터는 염화칼슘 0.3%액(20리터당 60g), 붕산 0.2%액을 2~3회 잎에 뿌려주어 영양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발작물은 비가 내린 후에 각종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용 약제로 반드시 방제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원별 담당지역을 설정 전담제로 책임 운영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현장중심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한마음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 총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제2강의실에서 2014년에 결성된 '한마음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회장 허철원)의 2주년 정기총회와 농산업 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농산업창업분야 전문위원 백삼열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창업사례와 법인설립 참고사항'란 주제로 강의하고 회원별로 컨설팅을 가졌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으로 농가에 단순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 경영 변화 관리와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심을 높여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수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 허철원 회장은 "지난 2년 간 회원들이 경영이론을 많이 배웠고, 이에 힘입어 경영마인드가 많이 변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길 기대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마음강소농 자율모임체'는 2014년 강소농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이 그 해 10월에 조직한 모임이다. 발족이후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자체 크로스컨설팅을 가져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물 점검

정읍시가 건축행정 건설허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사 업무대행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업무상 성실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과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한 건축물 품질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건축물과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다. 시는 감사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주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안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보건소 치매안심마을

담장 벽화그리기 진행

부안군 보건소는 2016년 농촌형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 지역사회 치매환경 조성사업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백산면 소수마을에서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 하는 치매안심마을 담장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다. 치매안심마을 담장 벽화 그리기는 민들레가죽복사, 백산고등학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미술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밀바탕 칠하기, 밀그림 작업, 벽화 그리기 기본교육, 본 작업, 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벽화 콘셉트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밝은 색 채감을 기본으로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물건, 사람, 전통문화와 행복한 가족 이미 지상이며 담장 벽화 그리기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 치매안심마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부안=이옥수 기자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2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봉철 대한노인회 부안 군지회장,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과 7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 700여 어르신들 참석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2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봉철 대한노인회 부안 군지회장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과 7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문문화는 계승하고 발전시켜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차원

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성심 유치원 장구 공연과 부안바람꽃 농악단의 신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공연과 함께 초대 가수 진 성세의 특별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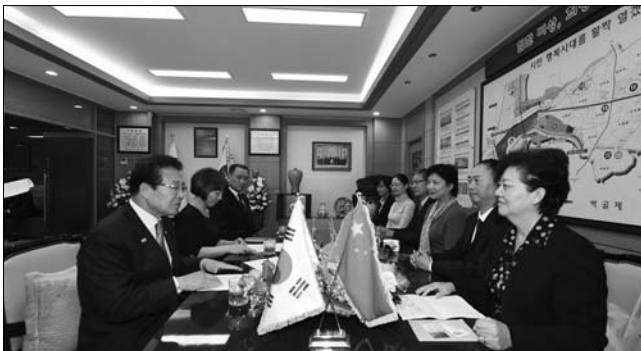
기념식에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노인 13명과 노인복지기여자 3명 등이 부안군수 표창을, 효행자 13명과 노인복지유공자 4명 등이 대한노

인회 부안 군지회장 표창의 기쁨을 안았다.

부안군 하서면 전전월 어르신은 백세노인에게 수여 되는 청려장(대통령이 드리는 장수장패)을 전수했다.

김중규 부안군수는 "우리가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기반이 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부안 정령 600주년을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의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남통시 대표단 6명이 1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김제시를 방문했다.

중국 남통시 대표단, 김제시 방문

내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및 교류확대방안 협의

김제시의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남통시 대표단 6명이 1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김제시를 방문했다.

김제시와 남통시는 1997년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방문기간 중 양도시간 자매결연 20주년(2017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 및 교류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뜻 깊은 20주년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환황해권 경제지역에서 김제시와 남통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양도시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

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남통시 대표단 판 평 단장은 "양도시간 우호협력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식 김제시장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표하며, 향후에도 청소년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시는 지난 1월 김제시에서 유소년축구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축구에 교류단이 8월에 김제시, 9월에 남통시를 각각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영양플러스 요리교실' 교육 가져

정읍시보건소, 임신부·영유아 대상 건강한 먹거리 확보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1일 2회에 걸쳐 '영양플러스 요리교실'을 가졌다.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 일환으로 마련된 요리교실에서 보충영양식품을 활용한 유아간식(감자당근 치즈스틱, 옥수수치즈만두) 만들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영양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당근과 브로콜리 등 야채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다양한 조리법을 안내하고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

신체 계측과 빈혈 검사, 영양섭취 상태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중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모집해 월 1회 영양교육과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연중 보건소 영양플러스실(☎063.539-6106,6087)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영양교육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움으로써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

지평선가요제 대상 임효라, 김제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견식)은 12일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랩송 하나인 제8회 지평선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효라(부양면 출신)씨가 시상금의 일부인 50만원을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지평선가요제를 주최하고 있는 희망김제민원봉사대(회장 김정태)도 지평선가요제에 선 당일 시내권 행사장을 찾아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갖 수확한 장학금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비램을 전했다.

평소에도 지평선프로미 순찰대 활동등 지역 청소년을 위해 봉사 에 앞장서고 있는 희망김제민원봉사대 김정태 회장은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효라는 "얼마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적으나마 후배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계속해

/김제=곽태기 기자

김태환 교원동장, 가을추수현장 방문 현장행정

김태환 교원동장은 본격적인 가을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수에 한창인 농가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드넓은 들녘 곳곳에서 가을걷이에 바쁜 농가들을 찾아가 준비한 쉼과 음료수 등의 새참을 나누며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풍의 장을 마련하여 바쁜 일

정속에 동사무소 방문을 어려워하던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태환 교원동장은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의 결실인 올해도 풍년농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가을 추수철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영농현장을 방문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